



지역여성운동의 현실과 지역사회 연구

허성우

영국 서섹스 대학교 여성학 박사과정

1. 글머리에

이 글은 한국 지역여성운동의 현실과 지역사회 연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에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대전지역 사례를 가지고 다룬다.

지역 여성과 여성운동의 중요성은 지난 1992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계기로 하여 국가의 여성정책 담론과 시민사회와 여성운동 영역 속에서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최근의 화두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한국의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 또는 심지어 여성운동이나 여성학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져 오지 않았던 분야여서 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 지역여성운동이란 중앙이나 서울과 구분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운동이라는 의미로 쓰여진다. 중앙과 서울을 같이 묶고 그것을 지역과 구분하는 이유는 서울은 ‘중앙’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공간을 포함하며 그것과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에서 지역이란 이른바 ‘중앙’이 아닌 그리고 ‘중앙’이라는 특정한 정치적·문화적 권력공간과 그것을 공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지역이 아닌 여타의 지역들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지역’이란 하나의 일반화된 사회적 범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역’을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지역들은 각기 다른 특성과 조건을 가지며 운동의 경험 또한 주체들에 따라 다르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대전지역 여성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 안에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소속의 진보적인 여성운동단체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나라는 특정한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성찰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경험이라고 하여 다른 이미 일반화된 경험이나 이론, 담론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각각의 특정한 공간에 대한 특정한 사람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실천과 연구에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먼저 지역 여성과 여성운동에 대한 논의들의 경향을 밝히고 진보적 여성운동 내에서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논점들을 발전시킨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 담론과 대전지역 여성운동의 현실 간에 괴리가 존재함을 밝힐 것이며,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이라는 추상적 공간을 전제로 한 이슈와 활동보다는 각각의 특수한 구조를 가진 지역이라는 구체적 공간에 위치지워진 이슈와 활동이 필수적임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공간성의 획득은 지역사회 밑바닥에 살아가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활현장과 욕구에 대한 탐구와 지역사회 구조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연구를 수반하는 것임을 논의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지역여성에 대한 논의의 경향¹⁾

1990년대 들어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큰 계기가 되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지역여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과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그 동안 사회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내에서 꾸준히 축적되어 온 지역연구에서는 여성현실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는 주로 지역 경제구조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계급운동이나 주민운동에 대한 연구, 혹은 지역주의나 지역감정 등 정치문제에 관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일부 지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여성현실을 고려한 것이 나타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 예로서 전반적으로 성별(gender)변수는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다(대구사회연구소, 1994; 문석남 외, 1994).

둘째,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의 여성정책관련 연구물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지역여성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지역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여성들의 현실을 보려는 입장이다. 1990년대에 걸쳐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여성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나 기초적인 사회적 존재양태를 조사해왔다. 한편 기초적인 통계에서 좀더 나아가 지역 내 여성단체활동이나 여성정책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대전광역시, 1997; 경기도, 1998).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책결정기구들이 여성학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위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정착에 대한 관심을 기저에 두고 참여자로서의 여성들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여성정책의 지방자치적 실현과정에 지역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1) 지역여성연구 경향에 대한 첫번째와 두번째 논의는 많은 인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성격상 상세한 인용은 피하고자 하였다. 상세한 자료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허성우, 1998, 「지역여성현실과 한국 여성운동의 새국면」,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2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측면에서 지역여성들을 정책과 제도구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다.

셋째, 진보적 여성운동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대중조직화에 지역여성의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1992). 이 입장은 지역여성의 조직화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여성들의 문제해결의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앞의 두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지역을 전국적 수준의 여성운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매개로 보고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지역여성들을 전체 여성운동의 조직화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연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은 지역여성들을 조직화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여성들이 스스로의 풀뿌리조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였다(한국여성단체연합, 1997).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풀뿌리조직은 평범한 지역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점에서 현재의 진보운동과 평범한 지역여성들의 일상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야 할 것인지는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에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지난 1990년대 동안 한국 여성운동이 얻은 성과가 지역사회 여성의 경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3.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과 지역여성운동의 현실

1)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

지난 1980년대 말 이후 199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주요 성과는 첫째,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권익의 향상, 둘째, 여성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압력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셋째, 여성운동의 대중화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넷째, 독자적 여성운동의 효율성을 실증했다는 점으로 여연은 정리하고 있다(여연, 1997).²⁾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안 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안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 결과 그 동안 여성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고통받던 일들이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의식과 질서의 변화가 오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의 정치세력화 전략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진출, 공적 부문에서의 할당제 추진과 같은 성과를 냈고 이 과정에서 여연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결과, 여연은 여협과 함께 여성운동의 양대 세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여성정책관련 활동을 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연계를 통해 일정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안을 내놓고 있어서 여성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으며 남녀차별구제금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제정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최근에는 유엔 등 국제여성활동에도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직적 성장을 이루었다. 여성노동자, 주부, 여성농민층의 이슈와 성폭력, 가정폭력문제와 복지, 교육, 평화, 환경, 정보영역 등으로 보다 넓은 여성층을 포함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지역여성운동이 양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지역여성운동조직들이 전국 각 주요 시도 단위에 만들어지면서 여성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여연은 보고 있다.³⁾

여기에 성(Sexuality)문제를 둘러싼 이슈의 생산은 1990년대의 중요한

2) 이 네 가지 논점 중 독자적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난 또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3) 1998년 현재 여연은 전국 68개 지역(기초 자치단체)의 회원단체와 그 지부를 포함해 102개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경기,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전북 등 5개의 지역여연과 충북, 대전, 경남, 수원, 안양, 제주, 포항, 울산 등에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여기에 소속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 여성의전화의 지부를 포함하면 지역의 분포는 더 넓어진다.

변화였다는 점이 덧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여연은 여성노동문제와 사회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전략에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다가선다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는 성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구되어 왔다.⁴⁾ 성상품화, 성폭력, 성애, 사랑, 결혼과 이혼문제 등 사생활에 감춰져 있었던 영역들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공공연히 이야기되어졌던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변화라고 생각된다. 성에 대한 관심들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참여나 법제도 개선운동이 조직의 보다 직접적인 집단적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보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졌다면 성, 가족문제에 대한 접근들은 문화적 영향력의 증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페미니즘 소설, 페미니즘 영화, 페미니즘 연극 혹은 예술 전시회 등이 빈번하게 등장했고 소수 여성학자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의 TV 출연, 강의나 토론 등도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중화되었다는 평가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정이 각 지역사회에서 모두 같이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다. 그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 정치, 문화적 조건들, 그리고 지역의 여성운동의 성장수준에 따라 이른바 중앙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성과들은 제한적으로 혹은 다르게 나타남을 본다. 대전지역의 경우는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이다.

2) 대전 여성운동의 현실

여연이 중앙에서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발전하는 동안 대전에서는 유일한 진보적 여성단체인 대전여민회가 그 맥을 이어오고 있

4) 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생활상의 이슈를 찾고자 했던 여성운동의 관심과 이것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던 국내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학 담론의 영향이 조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었다. 대전여민회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동안 여연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 제개정운동과 정치참여운동에 참여했으며 성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다루어왔다. 1990년대 중반경 조직은 침체되었었으나 1997년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해오고 있다.

먼저 법제개정운동 분야에서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정치참여활동 분야에서는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1995년 지방의회 선거에 한 여성후보를 대전 동구에 내고 선거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예가 있었다. 전국적인 법제개정운동은 성공적인 것이었으나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공청회, 압력과 로비활동 등이 보다 주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했지만 일반 지역여성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관심사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뭔가 자신들의 생활 자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한 단체의 제한된 활동은 많은 여성들에게 알려지기엔 한계가 분명했고 대부분 여성들은 그 법에 대해 결국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 정치참여활동의 결과 대전에서는 자민련의 비례대표제로 오직 1명의 여성 시의원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 그 직접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뿐이다.

성문제를 둘러싼 담론은 지역사회에는 풍부하지 못하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1998년 현재 19개의 지역조직을 갖고 있으며 한국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성폭력상담기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1996년 YWCA 부설과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성폭력상담기관이 만들어졌을 뿐이며 여성의전화 지부는 아직 없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조차 여성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은 갖고 있지 않으며 개별 여성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서비스전달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여성들은 오히려 페미니즘과 성해방의 담론을 상품화하고 있는 중앙중심의 미디어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지역여성운동이 대중적인 토양을 마련했으며 여협과 여연이라는 양대

구도를 성취했다는 평가와 달리 지역에서는 진보여성운동의 영향력은 미미하며 진보/보수라는 여협/여연이라는 양대 구도조차 성립되어 있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 현재 새마을부녀회는 3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대전여민회는 1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마을부녀회가 84.8%의 가장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데 비해 여민회는 16.6%의 낮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대전여민회의 정치적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정부나 공무원, 일반인들이 진보적인 여성운동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을 여성 일반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역여성들은 여성단체란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단체로 인식하고 있어서 진보적 여성운동이 서울에서 이룬 성과와는 대조를 이룬다(허성우, 1997).

대전 진보운동의 역사는 서울지역에 비해 극히 짧다. 일제식민지하의 전국적인 여성운동 조직이었던 근우회의 도단위 지부가 없던 유일한 지역이 이곳이었으며 부녀총동맹의 지역조직 역시 매우 취약했던 곳이 이곳이었다. 1970년대 이후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이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후 1980년대 후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전여민회를 제외한 다른 조직들은 단명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여성운동의 흐름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의 대학들에서 개설한 여성학 강의와 대전여민회에서 간헐적으로 여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여성문제나 여성학에 대한 사회교육 기회는 거의 없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허성우, 1997). 이렇게 볼 때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은 아직도 대다수의 지역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여성들의 전유물이며 낯선 언설에 불과할 뿐이다.

3) 한국 여성운동과 지역여성의 경험의 차이

대전의 예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

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여러 지역사회들에서 진보적인 여성운동보다는 보수적인 여성담론들이 더욱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비슷한 점으로 볼 수 있다.⁵⁾

전명숙(1995)은 서울지역의 남녀권력관계 연구를 통해 1990년대의 법제개정운동과 정치세력화운동, 페미니즘의 대중화 현상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담론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전국 여성단체 중 대대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연단체의 50% 이상이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어느 지역보다 서울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었고 집단적인 힘으로 세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페미니즘이 일정하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도 서울지역의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서울의 대중문화시설의 전국대비 집중도가 최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서의 페미니즘을 둘러싼 새로운 문화현상은 대단히 축소된 영향을 가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명숙, 1995: 475-479).

이런 점에서 한국 여성운동의 성과들은 어쩌면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험이며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여성들의 경험은 빠져 있다. 지금까지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서울과 전국 수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단선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여성운동의 다양한 발전과 부침의 과정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이승희, 1998). 지역여성들의 관심사와 욕구들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묻혀 있다.

5) 지역여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런 면에서 다음의 자료는 여러 지역여성현실이 서울과는 많이 다르며 지역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2호.

4.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논의

1) 왜 지역여성운동이 중요한가

한국 여성운동이 지역여성들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며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존재한다.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은 다른 사회운동과 함께 국가적 수준의 변화를 추구해왔다. 중앙집중화된 독재와 비민주적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은 그만큼 강력한 전국적 조직과 연대 그리고 통일된 이슈가 필요했다. 그러나 1990년대를 넘어선 지금,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탈냉전질서, 지구화경제와 민족과 국가 간 경계의 상호 넘나들, 군부독재의 종식과 문민정권,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등 민주주의로의 진전은 사회운동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해왔다. 이 많은 변화의 의미들을 여기서 다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의 중앙집중적 운동조직과 방식이 결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최선의 것은 아니었다는 점만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영역일 것이다. 오랜 중앙집중형 독재정치하에서 지역사회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자발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당해왔다. 유신과 군부독재가 얼마나 지역의 일상을 서로 감시하고 알아서 침묵하는 문화로 만들어 왔던지, 지금 사람들은 잊은 듯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지역사회의 정서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이토록 철저히 위로부터의 권력과 지배문화에 길들여져 왔던 지역사회의 자발성과 활력을 되찾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은 지역사회의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오늘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달갑잖은 말은 많은 지역대중들과 시민운동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남녀평등을 포함하는 민주주의는 작은 지역사회 단위로부터의 남녀노소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과 행동으로부터 실현된다. 직장으로 떠나버린 남성들 대신 지역사회 일상에는 여성들이 살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 학교, 각종 공식·비공식적인 모임들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솔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만큼 지역여성들의 존재는 중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지역여성운동은 풀뿌리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기본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운동과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2) 구체적 공간으로서의 지역

지역여성운동의 발전 정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의 발전을 위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지역여성운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국가 개혁의제가 많은 상태에서 상대적인 주민참여 운동에 대한 관심의 저조함, 지역운동 조직과 지도력의 취약함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과 지역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세계와 관련한 과제발굴,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그리고 지역여성운동가의 훈련 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남윤인순, 1999). 이러한 분석은 매우 일반적인 분석인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어반복의 논리에 근거해 있다. 지도력이 취약하니 지도력을 키워야 하고 대중성이 부족하니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어법이다. 우리들 중 운동에 참여했거나 또는 운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면 이러한 동어반복의 어법이 사람들을 얼마나 곤혹스럽게 하였던가 하는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동어반복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안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런 동어반복은 문제분석에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

지 않다는 데서 오는 추상적 언명이다. 이런 추상성은 문제를 맥락에서 보기보다는 전국 혹은 단일조직이라는 단일한 공간과 시간 안으로 축소시켜 보는 태도에서 연유한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대중성과 지도력의 결핍이라는 문제가 1980년대 이후의 사회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과 경험에 대한 고려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도력의 내용이나 조직적 과제는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논의는 한 단계 진전된다. 셋째, 이런 접근은 주로 조직 내부에서만 해답을 찾으려는 단혀진 방식이다. 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다. 그것은 사회적 환경과 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며 운동의 과정 역시 개인들의 창조임과 동시에 사회적 산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여성운동의 취약성은 우연적인 것이거나 조직 내부의 어떤 오류들의 단순한 결과물만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조와 역사의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나는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접근들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 한국 여성운동 정치학에 대한 반성이다. 그 동안 한국 여성운동의 정치학은 추상적인 단일한 공간으로 근거로 하여 여성들간의 같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경험을 한다는 차이를 포함하는 정치학에도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국을 단위로 동일한 이슈를 갖고 동일한 상대—주로 국가 혹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라는 강력한 중앙집중형의 동일한 이해집단을 상정했을 때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구화 경제체제와 지방자치제도라는 변화만을 고려하더라도 국가는 과거와는 다른 기능과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고도로 압축된 공간과 시간의 경험은 전국이라는 추상적 단위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대전에 사는 여성들, 농촌에 사는 여성들, 서울에 사는 여성들은 같은 경험을 하되 동시에 다른 경험을 한다. 그간의 이 동일한 경험은 한국 여성운동과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글로벌 페미니즘—북경여성대회에서

한국의 일부 여성들이 확인했듯—에 의해서 의제화되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가 전제되지 않은 동일함이란 미심쩍은 것이다. 예컨대, 여성문제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페미니즘이 공유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서구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의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 여성들이 체험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와 소도시와 농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모든 개인은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유한 차이로 인해 한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차이를 포함하지 않은 같음은 비민주적인 질서로부터 주어지는 담론일 가능성을 안고 있다.

둘째, 차이의 정치학은 한국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접근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압축적 발전과정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다분히 억압적으로 기능해왔다. 그러기에 차이를 밝히는 것은 더욱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간 차이, 농촌과 도시 여성의 차이, 부자인 여성들과 가난한 여성의 차이도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여성들 사이의 지역적 차이도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보고 이 점을 논의한다.

지역여성운동이 중앙의 여성운동에 비해 갖는 취약성은 단지 개인들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산물이다. 한국 사회 주요한 특성 중 하나가 지역 불균등발전이라는 점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다(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 사회운동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여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때 자원의 불균등한 지역적 분배는 사회운동의 발전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하다. 한국의 거의 모든 정치·경제·문화적 자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현격했으므로 서울과 다른 지역과의 운동 발전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지역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격차들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여성들은 어떤 특정한 산업구조, 정치·문화와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차별을 그 안에서 겪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지역여성운동 발전에 필요한 일일 것이다. 지역여성들의 실제적인 욕구와 현실적 상황을 알 때에만 여성운동의 지역의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여성들간의 차이를 밝히는 일에 대해 그것이 여성들간의 통일과 연대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 차이가 과연 얼마나 크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많은 지역사회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여성들의 연결망들이 한국 사회의 움직이는 거대한 동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혹은 그것이 여성운동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지역사회 밑바닥의 흐름들이 모습을 드러내야 하며, 그것은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이론이나 차이의 정치학 이론은 여기서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생생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보고는 이론보다 푸르를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런 차이의 현실을 밝히는 일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에서 이 점을 좀더 논의한다.

5. 지역여성운동과 지역사회 연구

1) 지식생산 주체로서의 지역여성

지역여성들은 그 동안 지역사회 연구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고, 국가 정책과 제도 구현의 대상으로 전국 여성운동 조직화의 대상으로 객체화되고 주변화된 존재였다. 지역여성운동조차도 스스로의 의제를 고민하고 만들

어가기보다는 중앙여성운동의 정보에 의존하는 사업수행에 숙달된 집단들처럼 보인다. 한편 부상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나 여성학 담론에도 지역여성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틈은 별로 없어 보인다. 거기에는 현실 이야기는 적고 이론과 개념은 많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지역여성의 구체적인 관심사는 아직 듣기 어렵다. 그러나 풀뿌리조직의 주인으로서의 지역여성은 자신의 삶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

여성운동과 여성학은 여성들의 경험이 고려되지 않은 관습과 지식들은 여성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한 지식과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과 여성학은 같은 성격의 사회적 실천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주변화되어 있던 지역여성들의 구체적인 생활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활터전에서 가능한 많은 여성들이 내놓은 이야기들이 여성운동의 의제가 되고 여성학 지식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할 터이다.

반복하지만 그 동안의 전국을 단위로 한 여성운동 의제와 여성학 연구들은 지역여성의 눈으로 볼 때 추상성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공간의 산물이었다. 특정한 여성들, 여성 집단들, 학자들만이 생산하는 지식과 담론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예컨대, 지역에서 여성운동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한국 여성운동은 그것에 의해 수정될 것이며 다시 쓰여질 것이다. 지역여성들은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지역여성들이 사회적 지식의 생산주체가 되는 것은 여성운동과 여성학의 가진 오래된 가치 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⁶⁾

6) 조순경(2000)은 최근 한국 여성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한자격을 가진 여성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여성학 지식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세련된 서구 이론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사로운’ 혹은 ‘하찮은’ 경험에서 나오는 ‘황당무계한 가설’이 어찌면 한국 여성의 경험에 바탕한 새로운 여성학 지식

2) 지역 사회과학연구와 여성운동의 연대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지역여성현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조주현, 1997). 한국 여성민우회나 다른 조직들도 이미 지역활동을 위해 거칠게나마 지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통계자료들이 지방정부나 기관의 차원에서 점차 제공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조사들은 아직 지역여성들의 삶에 관한 지식을 형성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사무직 여성노동 실태 등 몇 가지 사안별로 지역조사를 한 예가 있으나 이 역시 실제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 지역사회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영역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지역연구는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역여성 현실을 전체 지역사회로부터 조망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대전·충남과 같이 본격적인 지역사회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더욱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한다는 것은 지역여성운동 조직들로서는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나는 향후 지역연구에서는 지역여성운동과 사회과학 연구 간의 연대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본다.

이 연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여성운동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여성운동의 독자성 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1980년대 지역여성운동은 사회운동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는 보다 약한 연대와 보다 강한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여성운동의 독자성과 사회운동과의 관계는 세계 여러 나라 페미니즘에서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있는데, 나는 한국 여성운동이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1980년대 방식으로 복귀하지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지형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새

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조순경, 2000, 「한국 여성학 지식의 사회적 형성」, 《경제와 사회》, 제45호, 한울을 참조할 것.

로운 정치학을 가지고 다시 연대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칙적으로는 변화된 사회적 조건에서 여성문제가 어떻게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시 물어야 할 것이며 실천적인 면에서는 지역여성운동을 푸는 데 있어 연대는 중앙의 여성운동에서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는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여성운동가나 여성학자, 페미니스트들 등 인적 자원도 없으며 때때로 외국에서 오는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물적 자원이 없다. 따라서 제한된 물적 자원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과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 중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부분들과의 연대는 불가피하고 또 가치가 있다.

한편 지역의 사회과학 영역과 시민단체에서도 여성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과 남성은 공히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평등한 주체들이므로 실천과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남성의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했던 경향에서 보다 여성 친화적인 연구와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문제는 여성들이 스스로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만으로 풀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성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연대가 요청된다.

지역사회연구와 여성 현실에 대한 탐구는 지역여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추상적인 동일성에 머물러 있는 여성운동을 구체적 지역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여성학, 사회과학의 이론과 여성운동, 사회운동 실천의 괴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변화되어 있던 지역여성들이 지식생산의 주체로 변화되어 나간다면 그것은 지역사회를 점차 새롭게 변화하는 힘이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경기도. 1998, 『경기도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연구』.
- 남윤인순. 1999, 『21세기 초기 여성운동의 방향과 지역여성운동의 과제』, 《대구여성회 10년사》.
- 대구사회연구소. 1994,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문석남 외. 1994, 『지역사회와 사회의식』, 나남.
- 이승희. 1999,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과 과제』, 《새여성학강의》, 동녘.
- 전명숙. 1995, 『서울의 남녀권력관계』, 《서울연구》, 한국공간환경연구회.
- 조주현. 1997, 『지역여성운동의 자기 정체성 확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차세대 여성지도자 캠프 자료집》.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 『지역불균형연구』, 한울아카데미.
- 한국여성단체연합. 1992, 『민주여성』, 제13호.
- _____. 1998,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허성우. 1997, 『대전광역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
- _____. 1998, 『지역여성현실과 한국 여성운동의 새국면』,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2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